

기독교 가정의 자녀교육

정 확 실
(이화여대 교수)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싶을 것이다. 특히 자녀에 의해 엄마의 행·불행이 좌우되므로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교육은 불신 여성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자녀들의 성장이 가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또한 평가에 있어서 불신자는 자신에게서 끝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가리우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자녀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훌륭한 자녀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시험점수를 잘 받거나 피아노를 잘 쳐서 콩쿠르에서 입선을 하는 등 드러난 좋은 일에는 기분이 좋지만 착하다든가 남을 돕거나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등의 일에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신자들은 진정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인간으로 키우는 것인가를 먼저 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신 예수님을 닮은 인간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위해 자녀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자 한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꾸미므로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첫째 자기만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 만은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 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에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엄마의 마음 속에 자녀들의 자리가 있어서 늘 그들을 생각하며 자녀들이 그속에서 자신들을 표현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는 부부 간에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집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엄마는 남편에게서 받지 못하는 것을 자녀에게서 충족하려 하므로 자연히 자녀들을 자유롭게 두지 못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사랑과 훈육을 함께 담당해야 되는 것을 아빠의 무관심으로 엄마 혼자 감당해야 되므로 자녀교육이 힘들어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편중된 양육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인 여성은 비록 남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늘 자상하게 돌보아 주시니 홀로 살아도 만족하게 되므로 불신자들과는 달리 자녀에게 집착하거나 자녀를 구속하지 않게 되므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훌륭한 자녀교육을 위한 두번째 조건은 자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유를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부분이 합해져서 인간을 이루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지만 편의상 구분을 하면 몸, 혼, 영으로 나눌 수 있다.

몸을 소유하기에 먹고 입고 가꾸며 안전해야 하고, 영적인 필요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혼의 필요에 의해 심리적인 충족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를 아신다. 성경에는 쓸 것이라고 표현되는 데 빌 4 : 19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물질적인 측면 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 모두를 말한다. 그리고 이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이므로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 우리는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자녀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 기본필요를 잘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째, 신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야 한다. 이것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키워야 한다. 비록 물질적인 풍족을 자녀들에게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자녀들에게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신체적인 필요가 다 갖추어져도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다음에 영적인 필요는 어릴 때 부터 성경공부를 하고 성경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서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먹다가 어느 때엔 결국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며 늘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도 신체적인 필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녀들은 부모들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의 필요를 배우며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혼적인 필요가 있다. 혼적인 필요는 소속감, 창의적 성취, 자기 실현 등으로 말하지만 사랑받아야 할 필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신약에서는 사랑을 수용, 즉 타인이 나를 받아 주는 일이라고 표현한다.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죽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허약해지고 이상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최근 발달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받은 아동이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을 또한 학대하게 된다고 밝혀졌다. 그리고 모성애가 오래 전에 부정되어 키우는 동안 애정이 학습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최근에는 짐승과 똑같이 잔인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가는 세상이 되고 보니 부모들은 자신의 쾌락 추구때문에 자녀들을 귀찮게 여기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위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하므로 자녀의 혼적인 필요 또한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듯 사랑을 받으며 자란

린이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천재들은 어머니의 지혜로운 사랑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최대한으로 키운다는 것은 사랑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거의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하는 것으로 그치고 잘못했을 때는 고함이나 매로 계속해서 이동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꾸지람과 매가 덧붙여지면 아동은 부모를 두려워하며 멀리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의 표현이 정말 지혜로운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사랑한다는 것을 속으로만 하지 말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사랑하는 것에서도 마음에 비록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의지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감정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익숙지 않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정들도 풍부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부모가 전부인 아이들의 애정의 요구에 잘 반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이들의 요구가 부모들에게 수용되지 않으면 아동은 부모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므로 오해를 받게 되고 그들은 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도 부모와 같이 생각하여 기쁘시게 하기가 힘든 분이며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힘들다고 여기므로 바른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믿음도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께 나아가면 받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용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축복된 생활을 못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안심하고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없으며 언제나 경계하게 되어 피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포자기하거나 비양심적이 되기 쉽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결과는 소속감이 발달되고 인생이 즐거우며 생의 의미

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며 정서적으로도 강해지며 사랑의 능력도 생기게 된다. 또한 도덕성이 발달하여 세상의 유혹으로 부터 이길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된다. 이렇듯 사랑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각의 형태로 발달하게 되고 일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과 관련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 생애를 통해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시켜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어린 사랑의 표현을 계속 한다면 자녀는 원만하게 자라게 될 것이다. 덧붙여 배척받은 어린이의 특징은 결정에 있어서 우유부단하며, 마음을 열지 못하며, 말을 잘하지 않고, 부모에게 냉정하고 알미운 행동을 하기도 한다.

더러는 지나치게 과식을 하거나 변명을 하려하든지 쉽게 울거나 긴장해서 밤에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다.

배척한다는 것은 수용을 안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에 들고 안드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면 왜 마음에 안드는지를 분석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여 고쳐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갈등에 빠지게 한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런 갈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면 치료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녀를 통해 결국 나를 축복하시고 채워가시며 영광의 자리에 까지 인도하시는 이 교육과정을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우는 방법, 즉 사랑과 훈련으로 키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까지 훈련하시는데 부모는 협력하여 도와야 하고,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사랑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시켜야 한다. 훈련은

첫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형태로 자녀의 의지보다 부모의 욕망대로 키우고 둘째는, 자녀의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는 자기 중심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의 노예가

되어 결국 고독한 인간이 되고 만다. 마지막 형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훈육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것이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길러 순종하고 싶고, 또 순종하는 능력을 주는 참된 자유이다. 이것에서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력이 발달하여 어떤 일이든 기쁘게 하게 되므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세상에는 부모가 지배하는 형태, 어린이만 존중하는 형태, 그리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부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므로 부모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시켜야 한다.

두번째는 자유로 키우는 것으로 그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부모는 권위로 자녀에게 대할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죄인 됨에 대해 생각하며 문제를 의논하여 힘이 되어주고 문제 해결이 되어 감에 따라 그 의견을 많이 받아 들이게 되어 세번째 단계에 까지 가게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까지 가는데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어릴 때 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대화를 많이 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